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공일자	2024. 6. 21. (금)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동현	803-5101
심사분석1팀장	이창배	803-5102
담당자	김형욱	803-5103

##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1회 추경안 심사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최종 ‘원안 가결’
- 대구시교육청 첫 추경, 재량적 성격의 ‘시설사업 예산’ 크게 늘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20일(목)부터 21일(금)까지 양일간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안건 모두 최종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양일간의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총 3건의 안건을 현미경 검증 등을 통해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2023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0조 9,660억 6,100만 원, 세출 10조 3,828억 900만 원, 잉여금은 5,832억 5,200만 원이며, 대구시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4조 2,588억 3,400만 원, 세출 4조 640억 900만 원, 잉여금은 1,948억 2,500만 원임

양 기관의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해 세수결손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려나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세밀히 검증했다.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대구시교육청의 첫 추경안으로, 당초예산보다 1,947억 4,400만 원 증액된 4조 2,798억 1,4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세수 결손 이후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등 예년에 비해 대구시교육청의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된 점과 인건비나 교육복지 예산 등과 같은 법정·의무적 경비보다 재량적 성격의 시설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비가 전년 1회 추경 570억 원 대비 800억 원 가까이 증액된 1,370억 원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부분을 빠짐없이 살펴봤다.

그 외에도 인건비나 교육운영비, 학교지원금 분야 등의 예산 또한 내실 있게 편성됐는지,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를 검증하는 결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 가지 안전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예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다. 예결위를 떠나더라도 대구시민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라고 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대구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